

나는 어떤 상사일까?

직장 내 괴롭힘 위험진단 체크리스트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진정사건 분석결과, 괴롭힘 유형 1위는 '폭언'

(고용노동부 '19.8)



나는 어떤사람일까?
괴롭힘 가해자일까?

직장 내 괴롭힘 위험진단 체크리스트

(한국노동연구원, 2017)

1. 부하·후배직원의 실수에 대해 "뭐하는 거야!"라고 하는 등 강하게 질책했다.
2. 부하·후배 직원을 질책할 때 사물(볼펜, 종이 등)을 이용하여 툭툭 쳤다.
3. "앞으로 한번만 더 실수하면 회사생활 접어야 할 거다" 는 등의 해고와 관련된 말을 했다.
4. 다른 직원들 앞에서 사물(책상, 의자 등)을 치면서 언성을 높여 질책했다.
5. "그런식으로 잘도 하겠다", "설명해도 모르잖아" 등과 같이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말을 했다.
6. 부하·후배 직원을 공개적인 장소 또는 다른 직원들 앞에서 자주 질책했다.
7. 직급(직위)이나 적절한 호칭으로 부르지 않고 부적절한 호칭(여자·남자애, 아줌마·아저씨, 아가씨·총각, 인턴아 등)으로 불렀다.
8. 본래 업무에서 소외시켰다.(업무배제, 회의에서 제외, 사무실 외의 장소에 고립 등)
9.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일부러 알려주지 않았다.
10. 능력에 걸맞지 않는 낮은 수준의 일을 계속 시키거나,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일 (개인적인 심부름 등)을 지시하였다.

나는 어떤사람일까?
괴롭힘 가해자일까?

직장 내 괴롭힘 위험진단 체크리스트

(한국노동연구원, 2017)

11. 개인적 취미·성향에 대해 필요이상으로 간섭했다.
12. 직원의 특징, 질병, 연령, 장애에 관한 부적절한 발언(차별적 발언)을 하였다.
13. 불필요한 추가근무(야간·휴일 등) 또는 휴식시간, 점심시간에 간섭하거나 일을 강요하였다.
14. 퇴근 후 또는 휴일에 급하지도 않는 일로 여러 차례 연락(이메일, 문자, 전화, SNS 등)을 하였다.
15. 개인 의사와 상관없이 회식이나 친목모임 참여를 강요했다 또는 제외하였다.

체크해 보셨나요?

체크 항목 모두 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회사를 위해 후배를 위해 그러셨다고요?

괴롭힘을 가하는 심리는
회사를 위한 행동이라고 자기 합리화하여 상대를 모욕해 자신의 우월감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배려와 존중의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는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